

생물다양성 정책(Biodiversity Policy)

제 1 조 (목적)

본 정책은 현대하이텍·글로벌하이텍전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생물다양성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조달, 생산, 유통 및 판매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가능한 생물다양성 저해·손실 리스크를 점검 및 평가하고, 지역사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 복원, 확대하기 위한 원칙과 실행방안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생물다양성 정책은 국제사회의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적용 가이드라인(IUCN, Guidelines for Apply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Categories)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정책은 회사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회사와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생물다양성 증진, 야생 동식물 관리, 자연 서식지 보존, 기타 산림·토양·수자원 이용 등에 관한 현지 법률 및 규제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제 3 조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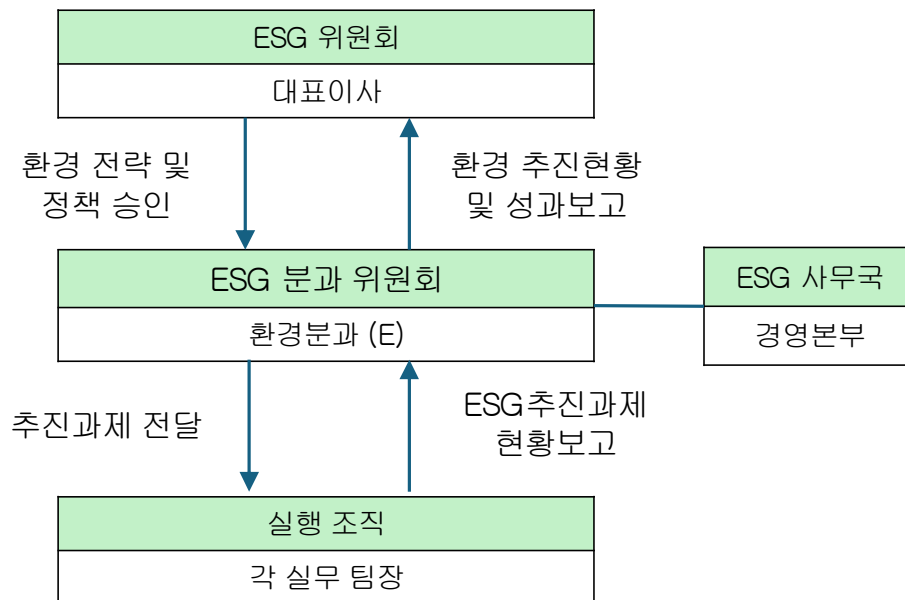
1. 자원을 채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한 후에는 이를 폐기하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를 벗어나,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생물다양성이 훼손된 경우, 서식지 및 토지의 복원폐쇄 등 방법을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생물다양성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장소에 대체 서식지 등을 조성하는 등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4. 경영활동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사업장 내외부에 지정된 보호지역과 그 외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지역을 모니터링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5. 사업장 소재지 및 협력사 소재지 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동식물의 위협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종(species)의 보존을 위한 전략을 마련한다.
6. 경영활동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그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 지역사회 참여 노력 및 프로젝트 결과를 공개한다.
7.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개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한 사업,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 이니셔티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 4 조 (실행방안)

1. 경영전략 및 의사결정 과정, 장기적인 리스크 분석 과정 등에서 생물다양성 이슈가 지속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절차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사회가 이를 감시한다.
2. 생물다양성 관리를 회사의 환경관리시스템에 통합하고, 이를 통제 및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표와 기준을 수립한다.

① 실행 조직도



② 실행조직 역할 및 업무 내용

환경경영 실행조직			
부서	담당자명	역할	업무 내용
생산관리팀	이사 정현	환경경영총괄부서	- ISO 14001 운영 - 환경 목표 및 실적 관리

생물다양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저감 - 폐기물 관리 - 환경 오염 예방
구매자재팀	팀장 김철	친환경 자재 관리	- 친환경 구매 정책 운영 및 추진
R&D센터	팀장 고재성	친환경 제품 관리	- 친환경 제품 개발
경영관리팀	팀장 오령탁	환경경영지원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 기획 및 실시 - 사무실 에너지 사용 저감 - 친환경 비품 구매 추진